

09
2023

재외동포의



특집 _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기획 _ 재외동포청, 직원 62명 신규 선발... 9월부터 조직 본격 가동
화제 _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고국서 부인과 합장



웹진 ‘재외동포의 창’ 발간 재개 인사말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6월 5일 개청하면서 ‘재외동포의 창’ 웹진도 새로운 모습으로 재외동포 여러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재외동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재외동포의 창’을 통해 재외동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해산되면서 ‘재외동포의 창’의 출간이 중단된 6개월의 공백을 기다려주신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도 올립니다.

재외동포청은 기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청(廳) 단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재외동포의 창’을 정보와 화제가 가득한 웹진으로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들의 현지 삶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재외동포 관련 새로운 정책과 정보를 신속히 알리며, 재외동포단체 행사도 전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은 물론이고 재외동포 사회 서로 간에도 좋은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동반자인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들과의 공동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과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개청 이후 두 차례의 청소년 모국연수와 두 차례의 대학생 모국연수를 실시해 총 1,800여명의 차세대 동포들이 직접 방한해 한국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대학생 초청연수 인원을 3,000명으로 늘리고, 재외동포 청년 인턴사업에도 25명을 새롭게 초청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청은 한글교육지원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재외동포청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상생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10월에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들의 끈끈한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 제17회 한인의 날을 맞아 2023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전 세계 각지로 뿔어나가 있는 한상(韓商)들이 모이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역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출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더 많은 외국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사회에서 높아진 재외동포 기업인들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해 재외동포들이 거주국 주류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히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외동포청은 우리 동포들이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우리 동포의 아픔을 보듬어야 하는 사명감을 띠고 사명이 있습니다. 재

외동포청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동포,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그리고 다문화가정 동포와 해외입양동포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모든 동포들을 각별히 세심하게 보살피려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재외동포청은 올해와 내년에 500분 정도를 모국으로 초청해 타국에서 겪은 설움을 어루만지고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여러분들이 ‘아, 조국이 내 옆에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동포 여러분의 손톱 밑 가시를 빼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차세대 동포들에게 정체성과 자긍심을 불어넣는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전세계 각지에서 훌륭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750만 재외동포들은 반짝 반짝 빛나는 구슬과도 같습니다. 이제 구슬을 꿰 수 있는 실과 바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첫 코를 꿰는 과정을 재외동포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의 창’을 통해서도 재외동포 여러분들과 재외동포청 소식을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



- 02 권두언 웹진 '재외동포의 창' 발간 재개 인사말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 04 특집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 06 기획 재외동포청, 직원 62명 신규 선발... 9월부터 조직 본격 가동
- 08 화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고국서 부인과 합장
- 10 한민족 공감 日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엄수
美 친한파 의원들, 정전 70주년 기념... "불가분 한미관계의 시작"
- 12 글로벌 코리안 가상화폐 범죄 단속 이끈 한국계 검사, 美 법무부 안보 부차관보 돼
위안부 다규 제작 아르헨티나 동포 2세 강 세실리아 감독
한인 테너 박종현, 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 선다
- 14 유공 동포 세계한인무역협회 창립한 장우상 초대 회장 별세
- 15 주목! 차세대 해외 첫 '한복의 날' 주도 21세 청년,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맡아
- 16 지구촌 통신원 한국과 수교 50주년 맞는 '오랜 친구' 인도네시아
- 18 동포소식 '창간 100주년' 고려일보, 카자흐 옛 사옥에 기념표지판 제막
- 20 문화유산 순천 선암사와 조계산
'꽃 절'로 이름난 선암사... 불교를 품은 명산 조계산
- 22 OKA 뉴스 재외동포 청소년 1천200명 초청 '정체성 함양' 연수 외
- 24 동포 캘린더 재일민단, 초등생 정체성 함양 위한 여름방학 캠프 개최 외
- 25 재외동포청 공지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교류 확대
- 26 기고문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며 재외동포청에 바라는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v.kr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발전과 경제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 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 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 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 사회를 교란하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군사령부(UNC)에 제공하는 7국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에 충분히 비축된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의 협력 강화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가 됩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안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런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과거와 달리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가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15일
대통령 윤석열

재외동포청, 직원 62명 신규 선발... 9월부터 조직 본격 가동

경력자 경쟁 채용... 공무원 · 민간 경력자 · 재외동포재단 출신 등 다양

지난 6월 출범한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이 경력자 경쟁 채용 방식으로 직원 62명을 새로 선발했다. 8월 10일 외교부는 4급 5명, 5급 15명, 6급 13명, 7급 25명, 8급 2명, 기록연구사·사서 각 1명 등 재외동포청 경력자 경쟁 채용 최종 합격자 62명을 발표했다.

최종 합격자는 국가·지방직 공무원 출신이 22명(35.4%), 민간 경력자가 20명(32.3%)이며, 재외동포청 출범과 함께 폐지된 옛 재외동포재단 출신 지원자가 20명(32.3%)으로 집계됐다. 기존 재외동포재단 직원 중에선 3년 이상 근무한 57명이 지원 자격을 얻었고, 50명이 실제 지원해 이 중 20명이 최종 합격했다. 재외동포재단 근무자 가운데 공무원으로 전환되지 않은 인원은 재외동포청 산하 기구인 재외동포협력센터로 고용 승계된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사업 등 동포청의 사업을

수탁해 진행하는 기능을 하며,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일부 국가 출신 재외동포 지원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용승계 문제는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기 때문에 (재외동포청 설립 근거인) 재외동포기본법을 만들 때 여야가 합의해 고용승계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이 33명으로 53.2%, 남성이 29명으로 46.8%를 차지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9일 재외동포청에 40개 직위 총 64명을 선발한다는 공고를 내고 3개월간 서류심사와 면접전형 등을 진행했다. 당초 선발하려던 차세대동포인권과 4급 1명과 미주유럽동포과 5급 1명의 경우 적절한 합격자가 없어 최종적으로는 62명을 선발하게 됐다. 재외동포청 전체 정원은 151명으로, 현재는 외교부와 여타 정부 부처에서 옮겨온 인원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9월 초까지는 최종 임용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신설 재외동포청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750만 재외동포 권익을 신장하며 한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출범식

2023. 6. 5. (월)



3

재외동포청, 6월 인천 부영송도타워에서 출범식 열고 업무 개시

재외동포청은 앞서 지난 6월 5일 인천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개시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 기념사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과 국격에 걸맞은 재외동포 전담 기구”라며 “앞으로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에 자리 잡으신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며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을 더욱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힘겹게 지켜온 재일동포, 중앙아시아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대한민국 경제 근대화의 초석이 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분들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열거했다. 이어 “다문화 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국내 체류 동포 등 전담 기구 부재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외동포청을 인천에 설치한 데 대해선 “인천은 120년 전 하와이로 향하는 이민선이 출발했던 재외동포의 뿌리”라며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계기로 더욱 활기찬 국제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청사 현판도 전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출범식 경과보고에서 “재외동포청은 편의성과 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청을 인천에 뒀다”며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분야별로 특수한 정책 수요를 감안한 동포 정책을 강화하겠다”며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국내외 동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나라별 한인회장 등 전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600여 명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서울 국민외교센터에 설치

재외동포청은 아울러 산하 기관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두고 초대 센터장에 김영근(67)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를 선임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국민외교센터에 자리한 협력센터는 지난 6월 1일 해산한 재외동포재단의 업무를 일부 승계했다. 센터는 동포 초청·연수·교육·문화·홍보 사업과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을 동포청으로부터 수탁해 진행한다. [▶](#)



4

1.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 재외동포청 본청이 입주한 인천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의 모습
3. 윤석열 대통령이 6월 5일 인천 연수구 부영송도타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에게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
4.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김영근 초대 센터장



1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고국서 부인과 합장

최 선생 유골 못 찾아 순국 추정지 흙 들여오고 부인 유해는 봉환

러시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1860~1920) 선생과 그의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1880~1952)의 넋이 최 선생 순국 103년 만에 고국에서 해후했다. 국가보훈부는 제78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서 '백 년만의 해후, 꿈에 그리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최 선생 부부 합장식을 거행했다. 최 선생의 순국 장소로 추정되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흙과 70여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여사의 유해가 마침내 고국의 국립묘지에 함께 묻힌 것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추모사에서 "최재형 선생님과 같이 일신을 독립운동에 바치시고 그 곁에서 내조하며 독립운동을 함께하신 분들이 있어 광복을 쟁취

할 수 있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세 때 부모를 따라 시베리아 연해주로 이주한 최 선생은 사업가로 자수성가해 축적한 부를 조국 독립과 수십만 시베리아 이주 동포들을 위해 사용했다. 러일전쟁 이후 국외 항일조직인 동의회(同義會)를 조직하고 총재가 되어 항일의병투쟁을 전개했으며,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또 현지 한인 신문 대동공보(大東共報)를 인수해 재장간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사를 게재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선출되는 등 활발한 독립운동과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로 '시베리아 동포의 대인인'으로 추앙받았다. 하지만 그는 1920년 연해주에서 '4월 참변'을 일으킨 일본군에 체포된 직후 살해됐으며, 그의 시신은 현재까지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부인 최 여사는 1897년 최 선생과 결혼해 8명의 자녀를 낳았고, 안중근 의사 순국 이후엔 그의 가족을 보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순국 이후에는 자녀들과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다 1952년 사망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공동묘지에 안장됐다.

서울현충원서 합장식...

최 선생 가묘,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됐다가 복원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는 1970년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에 조성됐으나, 이른바 '가짜 유족 사건'으로 멸실돼 지금까지 빈터로 남아있었다. 정부는 1962년 최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후손을 자처하는 이의 요청에 따라 1970년 서울현충원에 가묘를 건립했다.

그런데 1990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한 이후 최 선생의 유족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후손을 자처했던 사람이 실은 유족연금을 노린 가짜였음이 탄로났다. 이후 서울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108호에 있던 최 선생의 가묘는 2006~2009년 사이 멸실됐으나 유족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

유족들은 멸실된 묘의 복원을 희망했으나, 최 선생이 1920년 4월 일본군에 의해 순국한 이후 유해를 찾을 수 없어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하도록 규정한 국립묘지법에 따라 묘를 복원할 수 없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순국선열의 위패와 배우자의 유골을 함께 묘에 합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다. 합장식에는 광복절을 최 선생의 유족들과 박민식 장관, 이종찬 광복회 회장, 문영숙 최재형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8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강원도 동해로 향하는 카페리 이스턴드림호 편으로 최 선생 순국 추정지인 우수리스크에서 채취한 흙 3kg을 한국으로 보냈다. 총영사관 소속 러시아 직원 1명이 태극기가 부착된 황금색 보자기로 감싼 흙이 든 상자를 들고 뱃길에 올랐으며, 8월 13일 오후 동해항에 도착한 뒤 국가보훈부 측에 이를 전달했다.

부인 유해 수습된 키르기스스탄 공동묘지에는 기념비 설립

총영사관이 한국으로 보낸 흙은 국가보훈부 요청에 따라 지난 7월 25일 우수리스크에 있는 '최재형 기념관' (옛 최재형 지사 고택) 뒤편 언덕에서 채취한 것이다. 이후 총영사관은 다소 복잡한 절차를 밟은 뒤 한국으로 흙을 보낼 수 있었다.

하병규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는 "최 선생 유해를 직접 고국으로 모시지 못해 마음이 아프지만, 고택에서 채취한 흙이나마 조국으로 옮겨 최 선생의 넋을 기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문희 부총영사도 "비록 양은 많지는 않지만, 우수리스크에서 채취한 흙이 없으면 최 선생 묘 복원 취지가 빛바랄 수 있다"며 "흙 반출 과정이 다소 급박하게 진행됐지만 우리 정부 취지에 공감한 러시아 외교부 도움으로 증명서 발급 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의 유해는 8월 7일 항공편으로 국내로 봉환됐다. 최 여사의 유골이 수습된 뒤 키르기스스탄의 현장에는 대신 기념비가 세워졌다. 최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모시는 데는 최재형기념사업회의 대국민 모금 운동과 LG유플러스의 후원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됐다. **창**



2



3



4

- 8월 1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군 병사들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과 부인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 부부의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거행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과 최 엘레나 여사의 부부 합동 안장식에서 최 선생의 손자 최 파벨 씨가 분향하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부부의 합동 안장식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최재형 선생의 손자 최 파벨 등이 화환을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서 거행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부부의 합동 안장식에서 최 선생의 손자 최 파벨 씨가 허토하고 있다.

日 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엄수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참배... “편히 잠드소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과 부인 김건희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에서 세번째)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가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있다.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1945년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의 혼을 달래는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미국이 일본 혼슈 서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8월 5일 현지에서 엄수됐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위령제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희생된 우리 동포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원한과 증오는 버려두고 편히 잠드소서”라며 위령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6월 5일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했고,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은 처음이었다. 피폭자 2세인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이 청장의 첫 위령비 참배를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위령비에는 지난 1년간 사망한 피폭자 8명을 포함해 한국인 사망자 2천810명의 명부가 봉납됐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을 당시 한국인 약 5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히로시마 원폭으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를 3만 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위령비는 2만 명으로 기록했다. **장**

美 친한파 의원들, 정전 70주년 기념… “불가분 한미관계의 시작”

한국계 등 의원 4명과 한인단체, 의회서 참전용사에 보은행사

미국 연방의회의 친한파 의원들과 한인 유권자단체가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며 굳건한 한미관계를 가능하게 한 참전용사들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 하원의 한국계 의원 4명,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미주한인위원회(CKA),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이날 연방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을 공동 개최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참석했다.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인들이 자신의 미래,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미래를 위해 싸우러 한국으로 갔고 그 순간에 양국 간 불가분한 관계가 맺어졌다”며 “양국의 파트너십이 지난 70년간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정말 대단한 스토리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7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지금 이 순간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이후 얼마나 멀리 왔고 앞으로 70년간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영 김 의원은 지난 70년간 한반도가 평화로웠던 것 같지만 북한의 위협이 더 고조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바짝 경계하며 비무장지대(DMZ) 북쪽에서 이뤄지는 잔혹 행위를 더 자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한국에서 누리는 평화와 자유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미국 의회에서 한국계 미국 의원으로 일하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며 “난 계속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우리가 오늘 미국에 살면서 자유를 누린다는 점에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 하원의 앤디 김 의원이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하원 건물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 연방 하원의 마크 타카노 의원(민주)이 7월 27일 워싱턴DC에 있는 하원 건물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 “70년 전 남북한 중 누가 옳은 선택 했는지 명확”

이날 행사에는 한인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를 둔 마크 타카노(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도 참석해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타카노 의원은 “오늘 우리는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한미관계의 시작을 기념하고, 한미관계를 축하하며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여는 데 기여한 장병들을 기린다”고 말했다. 타카노 의원은 베트남전쟁에 한국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군과 같은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또 이날 리셉션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로버트 세네월드 전 한미연합사령관의 손자·손녀와 참전용사인 제임스 노먼 디그스 씨도 참석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 이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달했다. 조 대사는 “70년 전 한반도는 교차로에 섰고 그때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했다”며 “북한은 공산주의와 권위주의를 선택했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걷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받아들였다. 7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때 백악관에서 공연한 뉴저지 한국학교의 어린이 합창단이 아리랑을 불렀고, 참석자들은 오후 7시 27분이 되자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기리는 차원에서 전기 촛불을 점등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했다. **장**



가상화폐 범죄 단속 이끈 한국계 검사, 美 법무부 안보 부차관보 돼 최은영 가상화폐단속국장, 대테러·사이버 위협 담당 부서로 이동

미국 법무부에서 북한, 중국 등의 가상화폐 범죄 수사를 이끌었던 한국계 최은영 검사가 법무부의 대테러 기능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보국(NSD) 부차관보를 맡았다. 지난 7월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최은영 국가가상화폐단속국(NCET) 국장이 최근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 검사는 전날 자신의 링크트인 계정에 글을 올려 국가안보국 부차관보를 맡게 됐으며, 공식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부차관보 직무대행으로 일한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국가안보국은 법무부에서 정보 정책, 대테러, 방첩, 수출통제 등 국가 안보 관련 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매슈 올슨 차관이 이끌고 있다. 중국과 북한 등 적대국의 기술 탈취와 기반 시설 해킹, 온라인 정보전 등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면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국가안보국 산하에 국제 해킹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안보사이버과를 새로 설치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2월 가상화폐와 기타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담당할 NCET를 신설하고 최 검사를 초대 국장으로 임명했다. NCET는 지난 1월 프랑스 당국과 공조로 인터넷에서 마약 등 불법 거래 관련 송금에 활용된 홍콩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츨라토'를 압류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최 검사는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뒤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로 근무하며 가상화폐 수사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위안부 다큐 제작 아르헨티나 동포 2세 강 세실리아 감독 ‘내게서 출발한 배’ 올해 말 개봉 예정… “역사 속 여성과 현대 여성 대화”

아르헨티나 동포 2세 강 세실리아(38) 감독이 일제기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A Boat Departed From Me Taking Me Away'(내게서 출발한 배)라는 제목의 다큐로, 현재 촬영을 마치고 후반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강 감독은 8월 16일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올해 말이나 2024년 초 열리는 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다큐는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여성과 오늘날 여성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꾸며진다. 아르헨티나 동포 여성 멜라니가 과거 위안부 여성의 증언을 카메라 앞에서 낭독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관심, 위안부 여성들의 삶 등을 다루고 있다.



강 감독은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한인 이민자의 딸인 제가 ‘어떻게 위안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영화는 출발했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난 후 ‘어떻게 지금까지 위안부에 대해 몰랐을까’라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큐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노예로 이용당했지만, 오늘날까지 외면당하는 위안부의 고민, 갈등 그 자체가 멜라니와의 대화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 다큐는 국립영화영상위원회, 부에노스아이레스영상위원회, 아르헨티나 한인회, 아르헨티나상인연합회 등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다.

그는 2015년 단편 영화 ‘비디오 게임’(Videojuegos)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후보에 오르며 데뷔했다. 이어 두 문화의 공존과 모순이라는 주제로 한국인 여성 이민자들의 삶을 다룬 첫 장편인 다큐멘터리 ‘내 마지막 실패’(Mi ultimo fracaso)로 아르헨티나 영화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인 테너 박종현, 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 선다 린데만 영아티스트 개발 프로그램 멤버에 발탁... ‘마술피리’ 등 공연

한인 테너 박종현(30)이 세계 최고의 오페라 무대에 오른다. 미국 뉴욕의 가극단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이하 더 메트) 홈페이지와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종현은 더 메트의 린데만 영아티스트 개발 프로그램(LYADP)의 멤버로 발탁됐다.

이번 발탁으로 2023~2024년 시즌에서 ‘마술 피리’의 퍼스트 가드와 ‘로미오와 줄리엣’의 티발트 역을 각각 맡을 예정이다. 더 메트는 미국의 가장 큰 클래식 음악 조직으로, 매년 240회의 오페라 공연을 상연하는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의 최고의 무대 중 하나다. 1980년부터 오페라 분야 젊은 예술가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LYADP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현은 홍혜경, 조수미, 신영옥, 캐슬린 김, 박해상, 김우경 등과 함께 더 메트 무대에 서는 한국인 성악가가 됐다.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수학한 그는 최근 메트 라폰트 콩쿠르 뉴잉글랜드 지역 2위 수상을 비롯해 프리미어 오페라 파운데이션 국제 성악 콩쿠르, 대구 국제 성악 콩쿠르, 난파 전국 음악 콩쿠르, 한국 성악 콩쿠르 등에서 상을 받았다. 최근 오페라 산 호세의 팔스타프에서 펜턴 역과 메를라 오페라 프로그램에서 마직의 타이노 역을 맡은 바 있다.

예일대 오페라 단원 시절 예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예일 오페라 갈라에 출연하기도 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 창립한 장우상 초대 회장 별세

향년 97세... 재외동포 경제인 단체의 '큰 어른'

창립 42년 역사의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초대 회장을 맡았던 장우상 명예회장이 지난 8월 초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향년 97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유족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8월 16일(현지시간) 조용히 가족장을 치른 뒤 이틀 후인 18일 월드옥타 본부 사무국 등에 별세 소식을 알렸다.

고인은 1981년 월드옥타의 전신인 '세계해외교포 무역인연합회'를 창립해 2년간 회장을 맡아 이끌었고, 이후 월드옥타가 68개국 143개 지회에 7천600여 명의 회원을 둔 최대규모 재외동포 경제인단체로 성장하는데 '큰 어른' 역할을 했다. 1970년 미국에 이민해 무역업을 시작한 고인은 '재미한인무역협회' 회장을 맡고 있던 1980년 회원들과 함께 세계 한인 무역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듬해 고국 수출상담회인 '서울 교역전'에 참가한 16개국 101명의 한인 무역인을 중심으로 세계해외교포무역인연합회를 탄생시켰다.

초창기에는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협회를 운영하다가 1994년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하면서 재정 사정이 나아졌고, 단체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국산 섬유와 철강을 수입해 미국에 팔았던 고인은 65세 되던 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월드옥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면서 후임 회장들에게 애정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고인은 2021년 5월 열린 제22회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식 때도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등 변함없는 '월드옥타 사랑'을 보여줬다. **창**



월드옥타 초대 회장을 지낸 장우상 명예 회장이 2012년 10월 14일 '제1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경북 경주시를 찾아 언론 인터뷰하는 모습.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차세대 한인들에게 교육을 많이 해 그들이 월드옥타의 주인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첫 '한복의 날' 주도 21세 청년,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 맡아

브라이언 전 씨... 1960년 뉴욕한인회 창립 후 최연소 부회장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최초로 '한복의 날' 제정을 성사한 미국 한인 청소년 단체 대표가 뉴욕한인회 수석부회장에 임명됐다.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뉴욕한인회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수석부회장 명단에 브라이언 전(21) 씨가 이름을 올렸다. 뉴욕한인회는 뉴욕을 중심으로 뉴저지와 코네티컷 등 동부 3개 주(州) 교민 50만 명을 대표하는 한인단체다.

1960년 출범 이래 21세의 청년이 수석부회장 직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민 2세인 전 수석부회장은 한인 청소년 단체인 재미차세대협의회(AAYC)를 이끌어왔다. AAYC는 지난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공동 대처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다. 이후 AAYC는 미국 내 한인 등 아시아계의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AAYC는 지난 2020년 미국 동부 도시 테너플라이가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2021년에는 뉴저지주(州)를 설득해 한복의 날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초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는 뉴저지 주지사를 설득해 공립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시켰다. 이 같은 활동 때문에 AAYC는 지난 5월 밥 메넨데스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올해의 청소년 상'을 받기도 했다.



미국 뉴욕한인회 역사상 최연소 나이(21세)에 수석부회장을 맡은 브라이언 전 씨

전 수석 부회장은 향후 뉴욕시도 한복의 날을 선포하고,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역사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수석 부회장은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수석 부회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한복의 날 등 사업 추진과 함께 한인 사회의 세대 간 소통 강화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한국과 수교 50주년 맞는 ‘오랜 친구’ 인도네시아

600여년 전부터 양국 교류… 항일 독립운동 현장이기도

조 선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종 6년(1406년) 8월 11일 조와국 사신 진언상이라는 자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 나타난다. 그는 공작과 타조, 앵무 등 진귀한 새와 침향, 용뇌, 후추 같은 선물을 들고 조선으로 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도중에 왜구의 공격을 받아 물건들을 빼앗겼고 함께 온 사람들도 잡히거나 숨겨 40명만 해안에 올라올 수 있었다. 이에 태종은 진언상에게 옷 등 물품을 하사한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조와국은 자바국, 즉 인도네시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지금도 비행기로 7시간이 걸릴 만큼 먼 거리지만, 600년도 더 전에 양국이 이미 교류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의 독립운동 현장이기도 했다. 일본군 소속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이역관은 한인 동료들과 1944년 12월 29일 ‘고려독립청년단’을 결성, 낮에는 일본군으로 활동하면서 밤에는 독립운동을 모색했다. 그러나 1945년 1월 청년단원 중 3명이 싱가포르 전출 명령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면서 들고 일어나 일본 군인과 군속 12명을 사살한다. 이 일로 단체가 발

각됐고 단원들은 실형을 살다 해방 소식을 들었다.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발판을 만들어준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한국남방개발(코데코)은 1968년 2월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300만 달러 규모의 해외투자 허가를 받아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진출했다. 이는 국내 최초의 해외투자였고, 인도네시아로서도 처음 받아들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었다. 코데코는 1979년 2차 오일쇼크로 한국의 원유 비축량이 바닥나던 때 인도네시아 원유를 국내에 들여와 숨통을 틔워 주기도 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남북한과 깊은 인연… 현지 찌아찌아족 한글 사용

역대 대통령들과의 인연도 깊다.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는 당시 우리보단 북한 김일성 주석과 가까웠다. 1965년 김일성이 김정일과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했을 때 식물원의 한 난초에 관심을 보이자 수카르노는 ‘김일성화’라 명명하고 선물한다. 인도네시아 식물학자가 육종한 이 꽃은 학명도 ‘덴드로븀김일성



1. 지난 2022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배우 오성우 팬 사인회에서 인도네시아 팬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모습
2.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인 올해 5월 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3. 한글 교재로 현지 찌아찌아어를 배우는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초등학생들이 2021년 10월 8일 ‘한글날 575’를 하루 앞두고 한국에 인사를 전하고 있다. 찌아찌아어 한글 표기는 한국의 ‘한글 수출’ 사례 1호로 꼽힌다.
4.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지난 8월 한국어 및 인도네시아어로 제작해 배포한 인도네시아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안내서



2



3



4

란이다. 수카르노의 딸인 메가와티는 이때 김정일과 의남매를 맺었는데, 이후 그는 대통령이 됐고, 2002년 평양과 서울로 오가며 남북 간 가교가 됐다.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장인이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워보니 전 대사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당시 연인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위해 자주 한국을 찾았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이 한글을 사용하고,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한국인(신태웅 감독)이며, 한국의 요소수 대란 당시 인도네시아가 지원해 주는 등 양국의 끈끈한 인연은 차고 넘친다.

이런 오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 8월 수교 50주년을 맞았다. 많은 이들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매년 5%대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핵심 경제 파트너라고 꼽는다. 그간 한국이 중국의 빠른 성장과 거대한 소비시장에 올라타 함께 성장했던 것처럼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런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차와 SK, LG, 롯데,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인도네시아를 핵심 생산 기지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한국과의 협력에 적극적이다.

많은 인도네시아인은 K팝과 K드라마, 한국 음식 등을 즐기며 한국을 사랑한다. 서로 서로 필요로 하는 지금이 두 나라가 힘을

합칠 적기로 보인다. 과거의 우정을 기반으로 두 나라가 함께 더 높이 뛰어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서경덕 교수, 인니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알리는 캠페인 펼쳐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KB국민은행과 함께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펼쳤다. 서 교수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관련 안내서 1만부 발간 소식을 전하면서 독립운동 유적지를 소개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한국어와 인도네시아어로 제작된 안내서는 인도네시아 내 반일 독립운동단체인 고려독립청년당 결성지와 의거지, 인도네시아 암바라와에 있는 민영학 순국지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안내서는 자카르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과 한인회, 세종학당, 가자마다 대학교 한국어학과, 사산자바문화원, KB부코핀은행 등에 비치됐다. 영상은 한국어(<https://youtu.be/VDAXpJjpyEE>) 및 인도네시아어(https://youtu.be/baKP_CxJju8)로 제작됐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촬영에도 직접 참여한 서 교수는 “광복절을 맞아 동남아시아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했다”며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로 전파 중이며, 세계 주요 한인 및 유학생 커뮤니티에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

박의래 연합뉴스 자카르타 특파원

‘창간 100주년’ 고려일보, 카자흐 옛 사옥에 기념표지판 제막

한국어·카자흐어·러시아어 3개 언어로 기념 문구 적혀

올해로 창간 100주년을 맞은 고려일보사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24년간 사용했던 옛 사옥 건물에 기념표지판이 세워졌다. 고려일보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시 나자르바예바 62번지에 있는 옛 사옥 앞에서 기념표지판 제막식을 열었다고 8월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제막식에는 김 콘스탄틴 고려일보 주필, 누름베트 사크타가노프 부지사, 김 엘레나 크즐오르다 고려인협회장과 원로 김유리 씨 등이 참석했다. 기념표지판은 가로 80cm 세로 50cm 크기 검은 대리석 판으로, 한국어와 카자흐어, 러시아어로 “이 건물에 ‘선봉’ 신문의 후신이었고 ‘고려일보’의 전신이었던 ‘레닌기치’ 신문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적혀 있다.

1923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 4주년 기념식에 맞춰 창간된 고려일보는 1937년 고려인들의 강제 이주와 함께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로 옮겨와 ‘레닌기치’라는 이름으로 재발행되었고, 1978년 알마티로 사옥을 이전한 뒤 1991년부터 지금의 제호로 발행을 이어오고 있다.



창간 100주년을 맞은 고려일보 옛 사옥에 설치된 기념표지판

‘한반도 밖 가장 오래된 한글 신문’인 고려일보는 한국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등 3개 언어로 매주 16면씩 주간지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재일민단, 재일동포 통합 교류 네트워크 ‘KJ앱’ 출시

한국어와 일본어 2개 언어로 개발... 일본인도 이용 가능

재일본대한국민단(이하 민단)은 재일동포와 민단을 하나로 묶는 통합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인 ‘KJ앱’(Korea Japan App)을 8월 출시했다. 한국어와 일본어 두 언어로 개발된 이 앱은 재일동포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이용할 수 있다.

민단 본부와 지부의 정보 공지, 지진·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비상 연락 및 구호 요청, 자녀 교육·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민단 산하 생활상담센터와 연계한 법률 상담과 각종 동호회 모임 기능 등도 탑재했다. 앱을 PC 또는 휴대전화에 내려받아서 신원 확인 후 가입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민단 관계자는 “일제 강점기부터 거주해온 구(舊)정주자와 1980년대 이후 일본으로 건너온 신(新)정주자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및 한국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등 다양한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통합 커뮤니티 앱”이라며 “재일동포 사회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재일동포 통합 네트워크 ‘KJ앱’ 출시 안내문

상파울루서 브라질 한인 이민 60년 발자취 돌아보는 사진전

첫 이민자 103명의 산투스항 도착 사진 등 940여 점 전시

브라질한인회가 올해 한인 이민 60주년을 기념해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개최했다. 사진전은 상파울루 시립 역사기록보관소에서 8월 초부터 30일까지 열렸다.

60년 전 농업 이민단이 브라질에 첫발을 디디면서 시작한 한인 사회는 현재 5만여 명으로 성장했다. 초창기 농업이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상업·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했고, 상가 중심지인 상파울루 봉헤치로 거리는 한인타운으로 지정됐다.



상파울루서 열린 브라질 한인 이민 60주년 사진전 안내 포스터

1963년 2월 12일 브라질 산투스 항에 도착해 하선하는 103명의 첫 이민자들의 모습과 이를 대서특필한 현지 언론의 기사도 공개됐다. 이밖에 농업, 상업,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들이 모습이 담긴 사진 940여 점이 전시됐다.

권명호 한인회장은 “브라질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한인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소개해 정체성 확립을 돕기 위한 전시”라고 소개했다.

멕시코한인회, 첫 한인 소유 건물 ‘한국이민사박물관’에 성금

1천여만 원 전달... 박물관 있는 메리다는 ‘에네켄’ 이민자 첫 정착지

118년 전 시작된 멕시코 한인들의 이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에 동포들의 성금이 전달됐다. 멕시코한인회는 8월 12일 유카탄주 메리다에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에 건물 보수와 현대화 작업을 위한 발전기금 14만 페소(1천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메리다 센트로 65번가(Calle 65, Centro) 397A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애니깽’(에네켄·용설란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1천33명의 한인 1세대가 1905년 5월 유카탄주에 첫발을 디디면서 시작된, 118년의 이민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상징적 장소다.

현재의 한국이민사박물관 건물은 1909년 설립된 대한국민회 메리다지방회 회관으로 쓰였던 곳으로, 1934년 한인 1세대 명의로 소유한 첫 부동산이기도 하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 자금 모금처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날 성금 기탁식에는 허태완 주멕시코 대사과 돌로레스 가르시아 한국이민사박물관장, 후안 두란 공 유카탄 한인후손회장, 마르타 김 레온 멕시코시티 한인후손회장 등이 참석했다.



멕시코한인회 회원들이 8월 12일 유카탄주 메리다에 있는 한인이민사박물관에 14만 페소의 성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장원 멕시코한인회 회장은 “한인 선조 이민자의 이야기와 공헌이 담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전달하는 소중한 곳”이라며 “이 박물관을 소중히 여기는 한인들의 마음이 함께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순천 선암사와 조계산

‘꽃 절’로 이름난 선암사... 불교를 품은 명산 조계산

전남 순천시 조계산 동쪽 기슭에 자리 잡은 선암사는 한국의 대표 사찰 중 하나다. 529년 고구려 승려 아도화상이 세워 고청량산 해천사라고 명명했다는 설과 875년 신라 고승 도선국사가 창건해 선암사라 이름 지었다는 설이 함께 전해지는 천년고찰이다. 한국 불교 종단 중 조계종 다음으로 규모가 큰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이기도 하다.

선암사는 공주 마곡사, 보은 법주사, 양산 통도사, 영주 부석사 등 함께 2018년 한국의 산지승원으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이라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그 가치를 느껴보아야 할 사찰이다. 불교 신도가 아니더라도 선암사를 찾는 탐방객은 연중 끊이지 않는다. 세계적 여행 정보안내서인 미술랭가이드는 선암사와 경내 승선교에 각각 별점 3개를 부여했다. 이 별점은 최고 등급 여행지를 뜻한다.



‘꽃 절’ 선암사

웅장하고 번잡한 거대 사찰과 거리가 먼 선암사에는 여행자를 매료하는 요소들이 많다. 선암사가 다른 절과 구분되는 특징 중 하나는 꽃이다. 눈과 서리를 이기고 피어나는 매화를 시작으로 동백, 벚꽃,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자두꽃, 철쭉 등 온갖 봄꽃이 담장 옆에 흐드러지게 핀다. 보라색 열레지, 노란 민들레 등 마당 구석구석에 돌아난 작은 야생화들까지 가세해 기쁨을 노래한다. 남쪽 해안 지대에 위치한 선암사에는 여느 사찰이나 웅만한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꽃이 계절을 장식한다. 선암사가 ‘꽃 절’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원통전 뒤와 각황전 담 옆에는 수령 350~650년의 매화가 자라고 있다. 선암매로 불리는 이 노거수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세월의 흔적인지 검버섯처럼 거뭇거뭇해진 가지들에 핀 화사한 꽃들은 경외심마저 불러일으킨다. 선암사에서는 백매, 홍매,

청매를 모두 볼 수 있다. 수령 400년의 와송 옆에는 가지가 축축 늘어진 버들매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첨성각 앞에는 삼지닥나무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었다. 탐방객들은 처음 보는 꽃이라며 신기해했다. 올해는 따뜻한 기온 탓인지 봄꽃들이 시치를 두지 않고 한꺼번에 피어나 한바탕 꽃 잔치를 벌인 듯했다. 여름과 가을이 되면 수국, 석류꽃, 배롱나무, 상사화, 꽃무릇, 국화 등이 차례로 이 향연을 이어간다. 꽃과 함께 선암사의 정취를 돋우는 것이 이곳에 유달리 많은 연못이다. 정겨운 연못과 흙으로 지은 돌담은 외가나 고향에서 느낄 법한 편안함을 안긴다.

선암사의 상징이 될 정도로 유명한 승선교는 입구에서 삼인당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에 있다. 주차장에서 일주문까지 거리는 1km 훌쩍 넘는다. 차에서 내려 계곡을 따라 걸어 올라가다 보면 탐방

객은 천천히 불심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듯하다. 물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며 불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일 준비를 한다.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진 승선교는 무지개형 돌다리이다. 산사를 찾은 중생은 이 다리를 건넘으로써 번뇌와 오욕을 씻고 선계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간직한 다리이다. 승선교는 1707년(숙종 33년)에 세워졌다. 신선이 내려오는 누각이라는 뜻의 강선루는 승선교 위쪽 길에 세워져 있다.

불교와 생명의 터전, 조계산

조계산(해발 884m)은 한국 불교의 가장 큰 두 종단인 조계종과 태고종의 본산을 품은 명산이다. 산 서쪽의 송광사는 조계종 총림 중 하나이고, 동쪽 선암사는 태고종 유일 총림이다. 총림은 참선수행 공간인 선원, 경전 교육기관인 강원, 계율 전문 교육기관인 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을 말한다. 두 종단의 총림이 함께 있는 곳은 조계산이 유일하다. 이는 조계산의 뛰어난 지세를 방증한다.

조계산은 산세가 순한 휴산이다. 물이 풍부해 계곡 물소리가 우렁차고 숲은 울창하다.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내려다보니 서리 빛 대지가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파란 새잎이 돌아나기 전, 물이 잔뜩 오른 회색 나뭇가지들이 빛어낸 광채였다. 선암사와 장군봉을 잇는 길목에는 큰굴목재, 작은굴목재라는 고개가 있다. '굴목재'는 굴짜기를 가로막는 줄기에 난 길을 뜻하는 '굴막이'가 어원이다. 두 고개를 잇는 능선에는 굴참나무와 진달래가 뒤섞여 밀림을 이루고 있었다.

'한국의 산티아고 순례길'... 천년불심 길

선암사와 송광사를 잇는 6km가량의 숲길이 있다. 조계산을 동서로 길게 가르는 길로, '천년불심 길'이라 불린다. 선암사에서 출발하면 피톤치드 향이 그윽한 편백 숲과 큰굴목재를 지나고 계곡을 건넌다. 큰굴목재 부근에서 길은 가파르게 솟구쳤다가 급하게 내리뻗는다.

계곡 저편 송광굴목재에 닿을 즈음이면 나그네의 숨은 다시 가빠진다. 길은 하늘과 맞닿은 듯 위쪽으로 뻗어 끝이 보이지 않는다. 불가에서 시작해 불가에서 끝나는 이 길에서 자신과 싸우며 비탈을 오르내리다 보면 길손은 어느새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 떠도는 순례자가 된다. 면면히 중생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온 두 고찰을 잇는 이 길은 '한국의 산티아고 길'인 셈이다.

길 중간에 있는 보리밥집 두 곳은 등산객과 순례자들에게 큰 위안거리이다. 보리밥을 맛보기 위해 조계산을 찾는다는 너스레가 억지스럽지 않다. 넓은 마당에 펼쳐진 평상에 아무렇게나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 안에 도는 보리 알갱이를 느낄 즈음이면 안식이 슬그머니 찾아온다. **참**



2



3



4

1. 순천 선암사 입구의 일주문 모습
2. 선암사에서 수령 400년의 외송 양쪽으로 버들매가 활짝 피어 있는 모습
3. 선암사의 승선교와 강선루
4. 조계산에 있는 장군봉 표지석

재외동포 청소년 1천200명 초청 '정체성 함양' 연수

재외동포청은 세계 각국 재외동포 차세대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해 '2023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를 실시했다. '안녕'(Safe & Peace)을 주제로 1천200여명이 지난 7월 10~16일 1차, 8월 7~13일 2차로 나뉘어 서울, 천안, 안동, 제주, 시흥, 군산, 목포, 포항 등에서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모국의 사회·문화·역사 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뿌리 의식을 함양하고, 국내외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유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1차 연수 참가자들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일주일간 안동 하회탈 공연 관람과 전통 시장 방문, 수원 화성 등 역사 유적지 탐방, 경복궁·한옥마을 등 서울 도심 탐험, K-팝 공연 관람 등에 나섰다. 연수 기간 홈스테이를 통해 국내 청소년과 소통하며 모국에 대한 이해의 시간도 가졌다



8월 7일 천안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개회식 장면

2차 연수 참가자들도 천안, 시흥, 대전, 대구, 목포 등을 찾아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 고양을 위해 독립기념관 견학을 하는 등 문화 탐방, 역사 체험 등에 나섰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재외동포 긴급구호 함께 나선다

재외동포청이 대한적십자사(한적)와 협력해 해외 재난 상황 발생 시 재외동포 긴급 구호 및 지원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재외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해외 재난 상황에서 현지 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은 긴급 구호 및 지원에서 법적·재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국제적·국내적 인도적 지원역량을 가진 대한적십자사와의 협업을 그 동안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구호를 받지 못했던 재외동포들을 제대로 보듬을 수 있게 됐다"며 "동포청은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사할린 동포를 대상으로 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일시 모국 방문 시 건강검진 및 문화 탐방, 귀국 동포 역방문 사업



7월 27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재외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왼쪽)과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을 더욱 확대하고 원폭 피해 재외동포 지원 사업도 함께하기로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일동포 차세대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한글 교육 환경이 취약한 재일동포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3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를 개최했다.

일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학생 70여명을 초청해 모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캠프다.

참가자들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관으로 8월 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한국어 수준별 수업, 초등학교 방문, 서울 시티 투어 등에 참여하고, 그룹 프로젝트 등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관동·관서지역 한글학교협의회가 도쿄와 오사카에서 개최한 사전연수에 참가했다.

김영근 센터장은 "재일동포 차세대들이 캠프를 통해 모국을 더



재외동포협력센터가 개최한 '재일 차세대 초청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석한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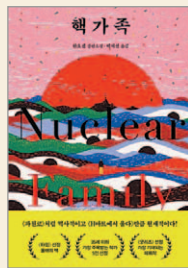
욱 친근하게 느끼고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양하길 바란다"며 "재일민단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추천 도서



핵가족

한요셉 씀 · 박지선 번역 / 위즈덤하우스



작가의 소설 '핵가족'(Nuclear Family)은 영화 '미나리'와 소설 '파친코', 에세이 'H마트에서 울다' 등을 잇는 디아스포라 작품이다. 제이컵의 가족은 하와이에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판다. 가게 이름은 '조씨네 델리'. 제이컵의 아빠 조정엽의 성을 딴 이름이다. 이들은 밥과 고기를 재료로 한 주요리와 콩나물무침, 달걀말이,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잡채'를 한 그릇에 담아 판매한다. 하와이 전역에 프랜차이즈를 내고 멋진 집을 사는 게 이들의 꿈이다. 하지만 그 꿈은 한국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러 한국에 간 제이컵이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다.

한 작가는 이민 2세대로,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하와이에서 자랐다. 그의 첫 책 '핵가족'은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고 있는데 지난해 '펜 / 헤밍웨이상 데뷔작 부문' 후보에 올랐고, '타임'지는 이 책을 '2022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했다. 32살인 작가는 전미도서재단에서 주관하는

'35세 이하 가장 주목받는 작가 5인'에 이름을 올렸다.

다른 디아스포라 작품들과 같이 이민자, 특히 이민 2세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 소설 전반을 둘러싸고 있다. 제이컵이 한국에 왔을 때 느낀 이유 모를 간지러움과 고통, 그리고 매일 대마초에 절어 시도 때도 없이 폭식과 구토를 하는 제이컵의 여동생 그레이스의 모습은 '야곱'과 '제이컵', '은혜'와 '그레이스'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가진,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 위치한 이들이 느끼는 혼란과 고통의 은유다.

'핵가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책은 하와이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38선이 그어지고 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산산조각 난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전한다.

소설은 대체 왜 제이컵이 월북이라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그 의문을 흥미롭게 풀어가는데 그 속에서 드러나는 혼령 '백태우'의 존재는 아픈 한국사를 드러낸다. 북한 출신인 그는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후 다른 살림을 차려 제이컵의 엄마를 낳지만 끝내 홀로 된 채 혼령이 됐다. 혼령이 된 그는 남과 북을 갈라놓은 벽을 뛰어넘으려 애쓰지만 벽은 예외 없이 단단할 뿐이고, 이에 그는 한국에서 우연히 만난 자신의 외손주인 제이컵의 몸 안으로 들어가 월북을 시도한다.





재일민단, 초등생 정체성 함양 위한 여름방학 캠프 개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은 재일동포 초등학생들의 정체성 함양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8월 21~23일 2박 3일 일정으로 도쿄 소재 한국중앙회관에서 '여름방학 학동 캠프'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캠프 기간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친구들과의 친구 맺기 활동에 나섰다. 또 일본어·영어를 비롯한 교과목 집중학습과 다양한 문화 체험에도 참여했다.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이 캠프에는 대학에 재학 중인 민단 산하 학생회 회원들이 지도 강사를 맡았다.

미주한국학교총연, 부에나파커서 제24차 교사 학술대회 개최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KOSAA·회장 백기환)는 8월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부에나파크 더블 트리 호텔에서 제24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를 열었다. 'K-문화와 한국어'라는 대주제와 '세계 7위 공용어를 대비한 한국어의 현재와 미래'라는 소주제로 개최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미국 서부와 캘리포니아 지역 한글학교 교사 등 3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더 발전된 교육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학술대회는 교사 교육 심포지엄과 차세대 리더십 역사 문화 세미나 등으로 진행됐다.



재일동포 망향가 그린 연극 '바람의 소리' 부산서 공연

일본 오사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재일동포 극단 달오름이 연극 '바람의 소리'를 8월 25~27일 사흘간 부산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했다. 재일동포 작가 김창생의 소설 '바람의 소리'를 바탕으로 만든 연극으로, 제주 4·3 사건을 피해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정착한 쌍둥이 자매 '설아'와 '동이'의 망향가를 그렸다. 주인공들이 오사카의 코리아타운인 이카이노(猪飼野)에 살면서 차별을 받고 당당히 재일동포로 살아가는 모습도 소개했다. 이번 공연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극단 해풍, 공연기획사 아리아리불꽃이 공동 기획했다.

광주 고려인마을, 광복절 기념 봉오동전투 재연

광주 고려인마을은 8월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봉오동전투를 재연한 거리 행진을 펼쳤다. 시민 참여형 행사로 열린 이날 행진에는 고려인마을 주민, 호남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시민 등 약 500명이 참여했다. 한 손에 태극기 우산을 펼쳐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물총을 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참가자들은 흥분도 장군이 이끈 봉오동 전투를 여름 축제로 재해석했다. 고려인마을 거리에서 행진을 이어간 참가자들은 흥범도공원(다모아공원)에 모여 고려인마을 극단의 연극 '광복의 완성 봉오동전투'를 관람했다.



도쿄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 알리는 심포지엄

재일민단 산하의 재일한인역사자료관(관장 이성시)은 9월 2일 일본 도쿄 한국중앙회관 8층 대회의실에서 간토대지진 100주년을 기념해 당시 재일조선인 학살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1923년 9월 일본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간토대지진과 관련해 당시 독립신문은 학살된 조선인이 6천661명이라고 보도했다. '무엇이 시민들을 학살자로 만들었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진상을 알리고 널리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교류 확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온라인)'를 운영 중이다. 이 연수는 재외동포들이 지리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모국어와 모국 문화를 이해하는 정체성 함양 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연수 과정은 필수과정으로 '재외동포 이해 교육', '한반도 평화의 이해',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공외교', '위대한 유산: 한글' 등 8개 과목으로 구성되고, 선택과정으로 '달은 듯 다른 대한민국 지역문화로 보는 한옥 이야기', '대한민국 전통음악 판소리 만나다', '대한민국 역사 교육' 등 5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필수과정을 이수할 때는 이수증도 발급된다.

연수는 지난 5월 시작해 오는 10월까지 운영되며, 매 기수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연수를 받는다. 연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온라인 플랫폼 URL: <https://okfyouthcamp.com>
(관심 있는 국내 대학생도 신청 가능)
- ※ 문의: 전화 +82-51-714-3119
(재외동포대학생 모국연수 온라인 운영사무국)
E-mail: okfyouthcamp@vncom.kr

재외동포청장 동정

- 9월 12일: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화상 참석
- 8월 12일: 미주한국학교총연합회(KOSAA) 학술대회 개최식 축사 및 기조강연
- 8월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도산 안창호 동상 건립 22주년 기념식 리셉션 참석
- 8월 8일: 미국 뉴욕지역 동포단체장 간담회 참석
- 8월 5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제 행사 참석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하며 재외동포청에 바란다



이진영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전 재외한인학회 회장)

재외동포청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기철 초대 청장님과 임직원분들의 성공적인 재외동포 정책 운용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 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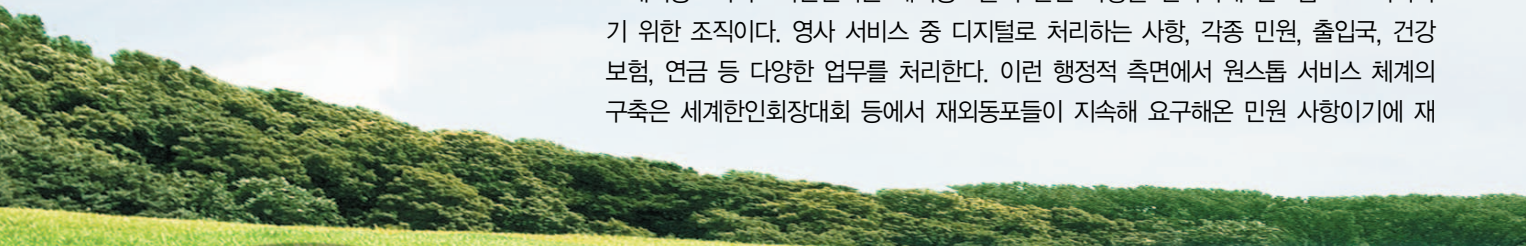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에서 “재외동포의 역사가 시작된 이곳 인천에서 재외동포청의 출범을 알리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앞으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 간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세대 동포, 재일동포,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 간호사들과 다문화가정 동포, 해외 입양 동포, 전담 기구 부재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국내 체류 재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기철 초대 청장 역시 재외동포청이 앞으로 세 가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첫째는 대한민국과 재외동포가 상생발전 하는 발판이 될 것, 둘째는 차세대 정체성을 함양하는 한글 교육 및 각종 교류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확대, 셋째는 소외지역 동포를 보살피는 것이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한국 재외동포 정책에서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 사건이다. 지난 30여 년간 지속해온 750만 재외동포들의 전담 기구설치 요청은 지난 6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지난 5월 9일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으로 일단락됐다.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 및 이에 근거한 재외동포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수십 년간 진행된 온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 체계와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동포청은 이 거대한 변화를 따라 변모해 재외동포와 모국 간 상생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재외동포청 내부 및 재외동포와의 소통과 홍보 구조 조속히 구축해야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외동포기본법 등의 규정에 근거해 제도적 인프라 및 소통과 홍보 구조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재외동포 정책 수립·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 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 재외동포 정책의 전반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과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의 역할과 내부 소통 체계를 구축하면서 동시에,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청을 잘 홍보해 알리는 외부 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재외동포들의 민원 사항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이다. 영사 서비스 중 디지털로 처리하는 사항, 각종 민원, 출입국, 건강보험, 연금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행정적 측면에서 원스톱 서비스 체계의 구축은 세계한인회장대회 등에서 재외동포들이 지속해 요구해온 민원 사항이기에 재



외동포와 재외동포청 간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역할과 재외동포들과의 소통 체계에 대한 확립도 필요하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됐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재외동포청과 산하기관 간 긴밀한 소통구조를 만들고, 외부적으로 재외동포청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확한 수요조사에 기초한 재외동포 정책 및 사업 마련

재외동포청 수립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획기적인 일은 재외동포 기본법의 제정이다. 이전까지 재외동포 정책은 기본법 및 기본계획이 없어 일관된 체계를 이루지 못했고, 중장기적 비전 수립도 어려웠다. 이제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재외동포청 설립과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또한, 기본계획과 함께 연차 및 기타 계획 수립과 평가도 가능해져 체계적 정책 수립과 집행 및 환류가 가능해졌다. 이런 제도적 측면에서의 인프라 구축과 함께 재외동포 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외동포청의 중대한 역할을 요청한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거주국별 정책 수립 필요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 간의 글로벌 갈등이 현재 증폭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차원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으로 서방과 러시아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한인 최대 거주국인 미국에서의 재외동포 공공외교 강화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규모 한인 거주국인 중국의 공세적 외교로 조선족을 향한 재외동포 정책의 입지가 좁아질 우려가 있다. 세 번째 규모 한인 거주국인 일본과의 관계 변화는 재외동포 상황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선린 우호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규모 한인 지역인 고려인 거주 국가들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역시 고려인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즉, 재외동포의 90% 이상이 거주하는 국가들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현명한 외교정책과 연관된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활성화 필요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 차세대의 현지 주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고, 이들은 자신의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여러 방법으로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 하원의원에 5명의 한인이 선출됨은 물론, 백악관, 검찰, 법원, 경찰 및 주(州) 정부의 고위직

에 진출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도 한인 정치인 및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분야에 한인들이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차세대 한인의 주류 사회 진출은 한인 거주국과의 양자 외교 관계는 물론 공공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정부와 재외동포 간의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성을 증대하고 있고, 이를 재외동포 정책에 포함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즉, 재외동포 공공외교의 활성화 필요성 커졌다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재외동포를 활용하는 '디아스포라 공공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중국, 인도는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아르메니아, 터키, 필리핀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해외 거주 자국 동포들의 역동성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며, 모국과 재외동포가 공동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디아스포라 공공외교 정책과 사업을 벌이고 있다. 재외동포의 투자, 인적 기여, 해외에서의 자국 브랜드 향상 등을 도모하여 공공외교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역시 750만 재외동포를 활용해 재외동포와 모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 회귀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 변화와 정책 필요

이런 점에서 국내로 회귀 이주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시각 변화도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중국 조선족 및 중앙아시아 내 고려인은 물론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각국의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의 회귀가 증가해 현재 100만에 이르고 있다. 750만 재외동포 중 13%가량이 외국이 아닌 한국에 거주한다는 얘기가. 현재 이들에 대한 연금, 건강보험 등 새로운 정책적 쟁점이 부각되고 있고,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점차 한민족 중심에서 다양성을 가진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사회로의 통합에서 이들을 한국의 다양성과 사회적 역동성을 높일 주역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국내 거주 동포 차세대에 대한 적극적 정책으로 앞으로 이들이 단순한 외국인이나, 재외동포 인재로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지난 30여 년에 걸친 재외동포 사회의 지속적인 열망에 따른 결과로 기대 또한 그만큼 크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의 말씀대로 '재외동포라는 구슬을 펴 수 있는 실과 비늘'은 이제 마련됐다. 그 첫 코를 꿰는 과정에서 750만 재외동포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코를 꿰는 과정은 그 자체로 모국과 재외동포 간 소통이자 협력이며, 상호발전을 위한 결음이다. **한**

2023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세계한상대회)

OCT. 11~14, 2023

Anaheim Convention Center
Orange County, CA, USA

KOREA-USA BUSINESS ALLIANCE,
STRONGER TOGETHER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더 큰 우리로

www.wkbc.us